

### 상승하는 케냐의 이자율

Francis Mwega Lecturer  
University of Nairobi

#### ■ 주요 내용

- 케냐는 높은 신용 거래 비용과 이자율의 스프레드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음.
- 2016년 금융법 수정안의 통과 이후 케냐 내에서 논쟁이 벌어짐. 찬성 측은 일부 분석가들은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이율 인상이 투자 및 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이율 제한 법안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함.
- 이율 제한 규정으로 인해 케냐 경제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 변화 및 경제 성장, 빈곤, 금융기관의 수익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야 함.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mailto: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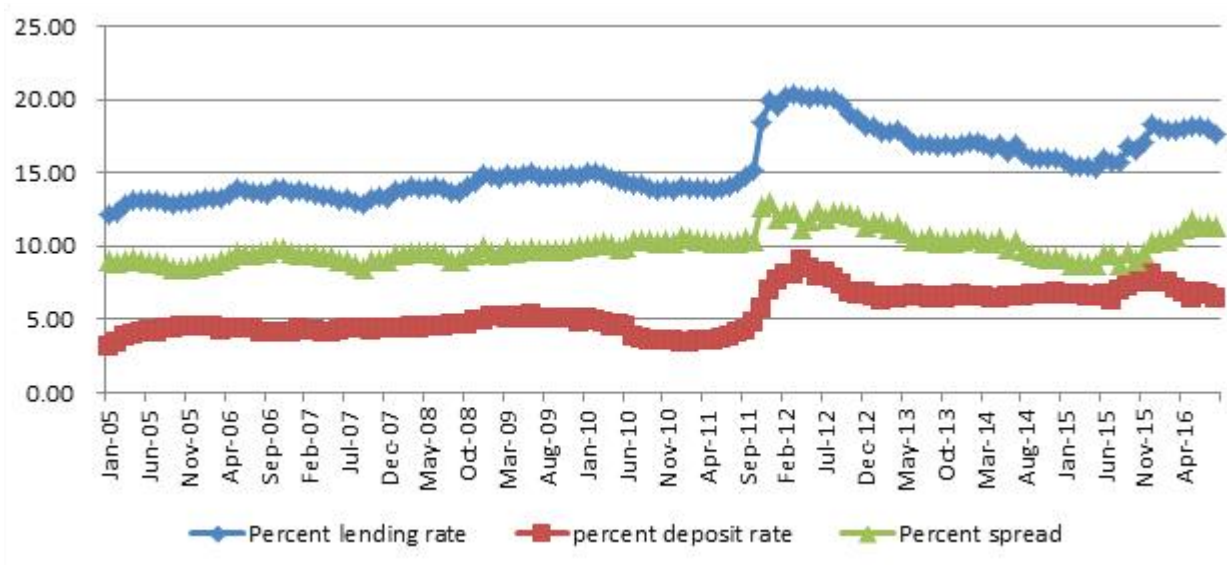
## 1 이슈 현황

☒ 케냐는 높은 신용 거래 비용과 이자율의 스프레드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음.

- 200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대출금리는 평균 15.4%, 예금이율은 5.4%로 그 격차는 약 10%에 달함.
  - 이 격차는 말레이시아,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및 탄자니아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특히 큰 수준임.
- 2005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자율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상승해왔으나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2011년 12월 케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통제 및 통화가치 하락 저하를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금융정책을 발표함. 이로 인해 대출금리 및 예금이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함.
-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는 2015년 5월에 8.7%까지 감소함.
- 그러나 중앙은행이 다시 긴축적 정책을 펼침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이자율 스프레드는 최고점인 11.46%에까지 달한 뒤 2016년 8월에 이르러 11.28%로 소폭 감소함.

그림 1. 2005년 1월~2016년 8월간 케냐 이자 스프레드의 변화

(단위: %)



자료 : 케냐 중앙은행

청색 : 대출 금리, 적색 : 예금 금리, 녹색 : 퍼센트 스프레드

- 또한 금융업 분야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금융업 분야의 세전 수익은 2010년 9억 3,740만 달러(약 1조1,078억 원)에서 2014년 15억 8,720만 달러(약 1조 8,758억 원)로 평균 14.3%의 증가를 기록함.
  - o 이 기간 금융업 분야의 자기자본이익률은 평균 28.4%로, 우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잠비아, 베트남 등 다른 ‘프런티어(frontier)’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임.
- 이러한 높은 스프레드와 수익률로 인해 케냐 금융업의 가격 담합 공모 행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와 규제 당국 및 의회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o 의회는 2001년과 2011년 여러 차례 금융업 분야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 도입을 시도했고 결국 2016년 7월 28일 대출금리와 예금이율을 규제하는 금융법 수정안이 통과됨.
  - o 수정안은 2016년 8월 24일 케냐타(Kenyatta)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16년 9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 o 이 수정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로부터 4% 이상을 넘을 수 없음.
- 2016년 9월 20일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0%로 정해짐에 따라, 대출이자 14%, 예금이율은 7%, 그리고 이율 스프레드도 7%대 내로 제한됨.
  - o 본질적으로 이번 금융법 수정안은 1991년 7월 이율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성격을 지님.
- 1991년의 이율 자유화를 통해 은행들은 예금금액 및 기간에 따라 자유롭게 최저이율을 설정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이 규정한 제한선 및 농업 진흥을 위한 대출 배당에 대한 지침 한도 내에서는 최대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음<sup>1)</sup>.

## 2 이율 제한 법안이 미칠 파장

### 2016년 금융법 수정안의 통과 이후 케냐 내에서 논쟁이 벌어짐.

- 일부 분석가들은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이율 인상이 투자 및 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냄.
- 반면에 케냐 중앙은행은 비슷한 정책을 취한 국가들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율 제한 법안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함.

1) Killick and Mwega 1990

- 비판자들은 먼저 이 법안이 금융의 ‘중개인 이탈(disintermediation)’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함.
  - 이들은 대출금리 제한으로 인해 운용 비용 및 리스크가 더욱 큰 개인과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이용이 더욱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그들은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사채업자와 같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약탈적 대출의 증가 가능성과 이율 제한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수료 등과 같은 이자 이외의 비용을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투명성 감소 문제를 들어 법안을 비판함.
-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수익률 하락, 특히 당좌예금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은행의 수익률 하락이 금융 안정성의 리스크를 증대할 수도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됨.
- 법안으로 인해 케냐 내의 은행대출 공급이 감소하고 성장-신용 탄력성이 약화된다면 경제 성장 저하와 빈곤율 증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더 나아가 이율 제한 정책은 통화 및 금융정책의 운신의 폭 역시 제한함.
-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긴축 정책을 펼친다면, 이로 인해 대출 이자의 제한선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대출 공급 증가라는 긴축 정책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은행들이 현재의 이율 제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환 대출에 중점을 둘 경우 통화정책은 흔들릴 수 있음.

### 3 결론

#### 이율 제한 규정으로 인해 케냐 경제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2016년 9월 발효된 이율 제한 규정으로 인해 케냐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 변화 및 경제 성장, 빈곤, 금융기관의 수익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야 함.
- 구체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지닌 개인과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공급 변화 및 경제성장과 빈곤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야 함.

- 더불어 대출금리 감소를 통한 수익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를 예상하고, 금융기관, 특히 소규모 금융기관의 수익률 변화를 분석해야 함.
- 또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이율 제한 규정이 가져올 영향과 변화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요구됨. **EMERiCs**

#### 출처

- Killick Tony and F. M. Mwega (1990), Monetary Policy in Kenya. ODI Working Paper 39, 1990,
- World Bank (2013), Kenya Economic Update: Reinvigorating Growth with a Dynamic Banking Sector.